

## ACTION 셋, 여학생 연대

### 자취 생활 고된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 -자취여성 네트워크

낮선 타지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는 어려움, 거기에 더해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난관들을 자취여성 네트워크와 함께 헤쳐가요. 자취여성 네트워크는 학교 주변에서 자취하는 여학생들의 커뮤니티입니다.

### ▷ 'ACTION!미미', 자취여성 네트워크 '3단계 프로젝트' ◁

#### 1단계. 싸이월드 '클럽 개설'

싸이월드 클럽은 보다 많은 여학생들이 소통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성균관대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답니다. 자취하는 여학생, 자취했던 여학생, 자취할 예정인 여학생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예)'후문 근처에 싸면서 으스스하지 않은 골목에 방범창 잘되어있는 집들 없나요?'

자취생활에 유용한 정보, 그리고 특히 여성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요.

예)'선배들이 밤에 자꾸 술마시러 오라고 해요. 집도 가깝지 않으나면서. 그렇지만 늦은 밤 멀리 사는 여자들은 집에 돌아가고 여자라곤 나만 남은 술자리는 불편하고 싫은데, 어찌죠?'

여자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은 개인적인 고민들이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여자라도 얼굴을 마주보고 말을 꺼내는 일이 힘든 경우가 있어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익명 게시판에 민감하지만 중요한 고민들을 풀어 놓고 서로의 경험에 공감할 수 있어요.

#### 2단계. 네트워크 기반 장터, 정기 모임, 소모임 '활동 지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장터와 모임들의 장소 및 각종 지원을 요구 하시면 언제든지 두 발 벗고 도와드립니다.

예)'고향에서 가져온 고구마가 너무 많아서 총여방에 놔두었어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나눔의 장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식료품을 비롯해 이사하고 남은 가구들과 전자기기들까지 모두모두 나누어보아요.

예)'무서운 밤길 집에 같이 가기 모임 하실 분~','학교헬스장에서 같이 운동 하실 분~','같이 마트에 장보러 가실 분~','이삿짐 나르기 품앗이 모임 하실 분~'

온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요. 자취생활에 도움을 주고받는 여학우들의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 3단계. 여성이 안녕한 자취지구 만들기 '공동 ACTION'

자취지구에서는 수시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러한 문제는 피

해를 겪는 혹은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여성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취 여성 네트워크와 함께 목소리를 내보아요.

예) 자취지구의 안전 문제는 사회와 학내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여론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여성이 안녕한 자취지구를 만들기 위해 종로구·명륜동·혜화동에 민원신청 및 학교의 대응을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촉구할 수 있습니다.

## ▷ 여성, 행복한 자취생활을 위해 손을 맞잡다 <

### 고된 자취생활, 서로에게 힘이 될 여학우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낮선 타지에서 여자 혼자 등지를 트고 살아가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근처에서 자취하는 남자 선후배, 동기들도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자이기 때문에 같은 여자에게 털어놓고 싶은 힘든 일, 필요한 도움과 유용한 정보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기숙사도 없는 우리학교, 자취하는 여학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동네 여자 친구 만들기가 이리 어려울까요. 자취하는 성대 여학우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이야기와 고민들을 털어놓을 인터넷 공간 어디 없을까요?

### 자취 생활 고된 여성 여기여기 모여라

혼자 사는 여성들이 힘든 점은 하고 싶지만 혼자하기에는 버거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외운 밤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없다는 것이지요. 혹시나 갑자기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 줄 가까이 사는 여자 친구가 필요하기도 하죠. 주제가 그 무엇이 되었건 여성들이 손을 잡고 자신의 언어와 경험으로 함께 꾸려가는 소소한 모임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답입니다. 함께 웃고, 울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어려울 때 도움 주는 여학우들의 모임을 꿈꾸어 봅시다.

### 자취지구 여학우들의 안전, 안녕하세요?

자취지구 일대에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작년에는 쪽문 쪽 상습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요. 이는 학교 주변이 여성들이 지내기에 좋지 않은 환경인데도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지역사회와 학교 차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를 피해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학내외 인식도 잘못되었죠. 이제 살기 좋은 자취지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행동에 나설 때예요. 혼자 말하면 힘이 약하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실효성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작년에 여학우들과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성추행사건을 이슈화 했고, 혜화경찰서와 연계해 밤길 안전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였어요. 또한 어두운 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작지만 소중한 한발자국의 변화가 있었고, 한 학생의 도움으로 성추행범을 잡기도 했답니다.

‘ACTION!미미’선본은 자취 여학우들의 ACTION을 지지합니다!